

편집성향 집단의 분노표현양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

이 훈 진†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편집성향 집단과 비편집 집단을 비교하였다. 대학생 247명에게 편집척도, Zung 우울척도,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귀인 및 추론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태-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의 적대성과 부정적 사건 발생가능성을 높게 평정했고, 분노 통제는 역상관을 나타냈다. 편집성향은 상태 및 특성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긍정사건 내부귀인, 부정 사건 외부귀인, 긍정 및 부정 사건에 대한 적대성 추론, 부정사건 발생 빈도 추정과 관련되었다. 우울의 경우, 상태분노, 분노 억제, 낮은 분노 통제, 긍정사건 외부 귀인, 부정사건 적대성 추론, 부정사건 발생 빈도 추정과 관련되었다. 집단 비교 결과, 편집 집단은 비편집 집단에 비해 상태 및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및 표출 수준이 높았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 행동을 더 적대적인 것으로 추론하고 부정적 사회사건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추론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 표현양식, 귀인 및 추론양식, 편집성향, 우울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 훈 진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번지 / FAX: 033-256-3424 / E-mail: hjlee@hallym.ac.kr

분노와 적대감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정서상태로 편집증, 우울, 경계선 성격 등 다양한 심리 현상 뿐 아니라, 고혈압, 심장질환, 암 등 광범위한 신체 증상과 관련되어 있다. 분노란 감정 경험, 내적 신체 반응, 타인에 대한 태도, 공격 충동, 공격 행동 등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복합적 현상이지만(Berkowitz, 1999), 대체로 생리적 각성이 동반된 불쾌한 정서로서 비교적 단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된다(Brannon & Feist, 1997; Smith, 1994). 또한 Brannon과 Feist(1997), Smith(1994)는 분노를 적대감의 하위 요소 중 하나로 보았고, 적대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포함하며 비교적 오래 지속된다고 하였다.

최근까지 분노와 적대감은 고혈압, 심장질환, 암, 통증 등 신체적 질병 및 증상과의 관련성 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 왔지만(이민선, 1997; 장문선, 김영환, 1997; Chon, Hahn, Chang, Kim, & Oh, 1998; Everson, Goldberg, Kaplan, Julkunen, & Solomon, 1998; Friedman & Rosenman, 1974; Kune, Kune, Watson, & Bahnson, 1991; Okifuji, Turk, & Curran, 1999; Sargent, Flora, & Williams, 1999), 우울과 양극성 장애, 반사회적 성격, 경계선 성격, 피해 망상 등 다양한 심리 현상에서 주된 특성으로 기술되고 있다(APA, 1994; Brody, Haaga, Kirk, & Solomon, 1999; Fava, 1998; Fava & Rosenbaum, 1999).

의심과 피해의식을 주 특성으로 하는 편집증의 경우에도 분노와 적대감은 핵심 특성 중 하나로 가정되어 왔다(APA, 1994; Dowson & Grounds, 1995; Fenigstein, 1994; Taylor, 1985; Wessely, Buchanan, Reed, Cutting, Garety, & Taylor, 1993). 편집증에 대한 전통적 이론에서 편집 성격자들은 자신의 분노와 적대감을 억제 또는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함으로써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을 형성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Cameron, 1963; Freud, 1915/1957). 경험적 연구 결과 편집성향이나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적대감 수준이 높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대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편향이 있었다(이훈진, 1999; 이훈진, 원호택, 1998). 또한 망상장애 환자의 분노는 공격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Kennedy, Kemp, & Dyer, 1992). 귀인 연구에서는, 편집증이 극단적인 방어적 귀인양식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

다(이훈진, 원호택, 1998; Candido & Romney, 1990; Fear, Sharp, & Healy, 1996; Kaney & Bentall, 1989, 1992; Kinderman, 1994; Kinderman & Bentall, 1997).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분노와 적대감은 편집증의 핵심 특성이며, 그러한 부정적 정서 상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귀인편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일반인이나 다른 임상 집단보다 더 높은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분노를 많이 경험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분노와 적대감이 편집증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므로, 편집성향자들의 분노 수준과 그 표현 양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편집증과 다른 임상 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분노와 적대감은 편집성격 이외에도 우울과 양극성 장애, 반사회적 성격 등 많은 임상 특성과 관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분노 및 그 표현양식이 아닌 전반적인 적대감 수준만을 비교했을 때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Brannon & Feist, 1997; Smith, 1994). 실제로 편집증 집단과 우울 집단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적대감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이훈진, 1999; 이훈진, 원호택, 1998).

구체적인 분노 유형 및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많지 않은데, Dowson과 Grounds(1995), Millon과 Davis(1996)는 편집 성격에서 일반적으로는 분노 억제가 지속되다가 상황과 자극에 따라 폭발적인 분노 표출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였고, 이훈진(2000)은 편집성향이 반응성 특성분노 및 분노 억제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렇지만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이훈진(2000)의 연구도 탐색적 수준의 연구였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Cameron(1963)과 Freud(1915/1957)의 전통적 투사 가정과 관련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즉 분노 수준 및 분노표현양식이 편집증의 핵심 변인인 귀인양식 및 추론양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경험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으며, 편집 집단이 통제 집단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지 않았다. 귀인 및 추론양식 연구에서도 주로 내

의 귀인 차원만 다루었고, 타인의 행동을 얼마나 적대적인 것으로 추론하는지 그리고 긍정 혹은 부정적 대인관계 사건이 앞으로 얼마나 반복될 것으로 추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Epps와 Kendall(199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적대성에 대한 추론은 의도에 대한 추론과는 별도로 공격성 및 분노와 관련되기 때문에 내외 귀인과 별도로 적대성에 대한 추론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분노와 적대감 수준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가지는 적대성 추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신을 향한 타인의 긍정적, 부정적 행동의 예상 빈도 추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과 내외 귀인, 적대성 및 사건발생 가능성 추론양식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편집증 집단의 분노 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귀인 및 사회적 추론 양식을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방 법

피험자

춘천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247명(남 88, 여 156, 성별 무응답 3)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20.13세였다.

도 구

편집 척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제작한 척도로 피해의식과 불신, 의심을 중심으로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alpha = 0.88 \sim 0.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 = 0.87$ 이었다.

한국판 Zung 우울척도(한국판 SDS).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 우울증의 정서, 생리, 심리적 증상을 기술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제작되었으며, 반분신뢰도는 $r =$

.73~.74, 내적 합치도는 $\alpha = 0.79 \sim 0.80$ 으로 보고되었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Chon, Hahn 및 Lee(1998)가 번안, 개발한 척도로 상태 분노(10문항), 특성 분노(10문항),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 분노는 다시 기질성 특성분노(5문항), 반응성 특성분노(5문항)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분노 억제란 분노를 내적으로 억압하는 경향을 말하고, 분노 표출은 외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 둘은 모두 감정적 요인이 강하게 개입된다. 반면, 분노 통제는 감정적 요인의 개입 없이 인지적으로 분노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Chon 등(1998)이 보고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alpha = 0.73 \sim 0.90$ 이었다.

귀인 및 추론 질문지. 이영호(1993)가 사용한 귀인 양식질문지의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내외 귀인 차원에 행동의 적대성 추론, 사건 발생 예상 빈도에 대한 추론을 추가해 구성하였다.

결 과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 편집성향 및 우울간의 관계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동시에 선행 연구에서 시사된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성향 및 우울 간의 상호관련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변인간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의 상관계수를 보면, 편집성향은 분노 통제를 제외한 상태 및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및 분노 표출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 귀인 및 추론 양식에서는 긍정 사건에 대한 내부 귀인, 긍정 및 부정 사건의 적대성 추론, 부정 사건 발생 가능성 추론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우울 점수의 경우 편집성향과 유사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분노 통제와 긍정사건 내부 귀인에서

표 1. 변인간 상관행렬표 (n=237~247)

변인명	SDS	PS	SA	TA	A-I	A-O	A-C	P-I	N-I	P-H	N-H	P-F
SDS												
PS	.58***											
SA	.43***	.49***										
TA	.41***	.55***	.43***									
A-I	.46***	.51***	.31***	.42***								
A-O	.27***	.41***	.28***	.66***	.34***							
A-C	-.31***	-.11	-.05	-.25***	-.09	-.40***						
P-I	-.17**	.16*	.09	.17**	.11	.20**	.01					
N-I	.08	-.06	.12	-.11	.05	-.04	.10	.08				
P-H	.21**	.19**	.16*	.09	.10	-.03	-.05	.05	.02			
N-H	.20**	.19**	.03	.13*	.13*	.10	-.16*	.06	-.18**	.001		
P-F	-.10	.03	.11	.07	.01	.02	.19**	.19**	.07	-.28***	-.06	
N-F	.37***	.41***	.31***	.27***	.27***	.22***	-.17**	.10	.23***	.23***	-.01	.11

SDS=Zung 우울척도 PS=편집척도 SA=상태 분노 TA=특성분노 A-I=분노 억제
 A-O=분노 표출 A-C=분노 통제 P-I=긍정사건 내부귀인 N-I=부정사건 내부귀인
 P-H=긍정사건 적대성 추론 N-H=부정사건 적대성 추론
 P-F=긍정사건 발생빈도 추정 N-F=부정사건 발생빈도 추정
 *p<.05 **p<.01 ***p<.001

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편집성향과 분노 통제와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은데 반해, $r(243)=-.11$, n , 우울과 분노 통제와의 상관은 $r(242)=-.31(p<.001)$ 이었고, 긍정 사건 내부 귀인에서는 편집 점수와 반대로 역상관을 나타냈다, $r(243)=-.17$, $p<.01$.

상태-특성 분노 수준과 귀인 및 추론 양식간의 상관 분석 결과, 상태분노와 긍정 사건에 대한 적대성 추론 및 부정 사건 발생 가능성 추정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r(244)=.16$, $p<.05$, $r(247)=.31$, $p<.001$. 특성 분노 수준은 부정 사건에 대한 적대성 추론 및 부정 사건 발생 가능성 추론과 상관성이 있었다, $r(244)=.13$, $p<.05$, $r(244)=.27$, $p<.001$. 이는 상태 및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적대성을 높게 추론함을 시사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정적 행동을 할 가능성과 빈도를 높게 추론함을 시사한다.

분노 표현양식과 귀인 및 추론 양식간의 관계 면에서,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은 부정 사건 발생가능성 추

정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r(241)=.27$, $p<.001$, $r(239)=.22$, $p<.001$, 분노 통제는 역상관을 나타냈다, $r(245)=-.17$, $p<.01$. 또한 분노 억제는 부정 사건에 대한 적대성 추론과 상관성이 있었던데 반해, $r(241)=.13$, $p<.05$, 분노 통제는 역상관을 나타냈다, $r(245)=-.16$, $p<.05$. 또한 분노 통제는 긍정 사건 가능성 추정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r(243)=.19$, $p<.01$. 이는 분노 억제와 표출은 대인관계 경험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물론 부정적 대인관계 경험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추정하는 것과 관련됨을 시사하며, 분노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편집성향과 우울간의 높은 상관을 고려할 때, $r(242)=-.58$, $p<.001$, 단순상관 분석 결과는 편집증의 독특한 특성을 밝히는데 제한이 있으며, 따라서 편집점수와 우울 점수의 영향을 상호 통제한 후 부분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의 부분상관계수를 보면, 편집 점수의 경우 우울

표 2. 편집 및 우울 점수와 분노 표현양식, 귀인 및 추론양식간 부분 상관 (n=223)

변인명	SA	TA	A-I	A-O	A-C	P-I	N-I	P-H	N-H	P-F	N-F
PS	.35***	.42***	.36***	.33***	.05	.15*	-.14*	.10	.14*	.07	.28***
SDS	.18**	.12	.21***	.02	-.27***	-.15*	.11	-.04	.17**	-.13	.18**

PS=편집척도 SDS=Zung 우울척도 SA=상태 분노 TA=특성분노 A-I=분노 억제
 A-O=분노 표출 A-C=분노 통제 P-I=긍정사건 내부귀인 N-I=부정사건 내부귀인
 P-H=긍정사건 적대성 추론 N-H=부정사건 적대성 추론
 P-F=긍정사건 발생빈도 추정 N-F=부정사건 발생빈도 추정
 *p<.05 **p<.01 ***p<.001

점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귀인 및 추론 양식에서도 긍정 사건에 대한 내부 귀인, 부정 사건에 대한 적대성 추론, 부정 사건 발생 가능성 추론과 정적 상관을, 부정 사건 내부 귀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우울의 경우, 편집 점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상태 분노, 분노 억제와 정적 상관을, 분노 통제와는 부적 상관을 유지했다. 귀인 및 추론양식에서는 부정 사건에 대한 적대성 추론 및 부정 사건 발생가능성 추정과는 정적 상관을, 긍정 사건에 대한 내부 귀인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우울과 편집성향의 가장 주된 차이는 특성 분노 수준과 분노 표출 및 분노 통제, 긍정 및 부정 사건에 대한 내외 귀인에 있었다. 즉, 우울과 편집증은 높은 상태분노, 높은 분노 억제, 부정적 행동에 대한 적대성 추론, 부정 사건 발생 가능성 추론 면에서는 유사하나, 편집증이 높은 특성 분노, 높은 분노 표출과 관련되는데 반해 우울은 낮은 분노 통제와 관련되었다. 귀인 및 추론양식에서는 편집증이 긍정 사건은 내부로, 부정 사건은 외부로 귀인하는 방어적 편향과 관련되는데 반해, 우울은 긍정 사건은 외부로 부정 사건은 내부로 귀인하는 편향과 관련되었다.

편집 집단과 비편집 집단 간 비교 및 성 차 분석

앞의 상관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선행 연구(이훈진, 1999, 2000)와의 비교 및 임상 집단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부가적으로 편집 집단과 비편집 집단을 비교하였고, 성 차 탐색을 위해 남녀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247명 전체 집단의 편집점수 평균(M=22.10, SD=10.75)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이상(33점 이상), 이하(11점 이하)인 경우를 편집 집단과 비편집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편집 집단 36명(남 12, 여 24), 비편집 집단 38명(남 15, 여 23)을 선발하였다. 두 집단 간에 남녀 성비는 차이가 없었으며, $\chi^2(1, n=66) = 0.58, ns$,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 차 분석 결과에서도 우울 점수(남 38.92, 여 41.19, $F(1, 239)=5.26, p<.05$) 이외에는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편집 집단과 비편집 집단 비교 자료만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편집 집단은 비편집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수준이 높았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행동을 적대적인 것으로 추론하는 경향,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 행동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높았다. 우울 수준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경우에도 거의 모든 변인에서 단순변량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논 의

본 연구는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 편집증 및 우울과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 보고, 편집 집단과 비편집 집단의 차이 및 성 차를 알아 본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 및

표 3. 편집 집단과 비편집 집단의 분노표현양식, 귀인 및 추론 양식 평균(표준편차)

측정치	편집(n=36)	통제(n=38)	F
편집척도 총점	40.25 (6.36)	7.10 (3.26)	840.89***
우울 점수	46.29 (6.68)	33.92 (6.05)	69.85***
상태 분노	16.00 (5.61)	10.33 (0.53)	40.58***
특성 분노	23.97 (5.43)	16.03 (3.03)	61.25***
분노 억제	19.97 (3.10)	12.76 (3.70)	79.94***
분노 표출	17.12 (3.91)	12.55 (3.06)	30.84***
분노 통제	20.33 (4.28)	21.22 (4.74)	0.73
긍정사건 내부귀인	4.46 (0.83)	4.19 (0.47)	3.01
부정사건 내부귀인	4.36 (0.80)	4.33 (0.91)	0.33
긍정사건 적대성 추론	2.69 (0.96)	2.21 (0.77)	5.61*
부정사건 적대성 추론	4.51 (0.56)	4.27 (0.82)	2.28
긍정사건 발생가능성 추정	4.63 (0.85)	4.56 (1.06)	0.97
부정사건 발생가능성 추정	4.25 (0.74)	3.26 (0.91)	27.08***

* $p < .05$ ** $p < .01$ *** $p < .001$

부분상관 분석 결과, 편집성향은 상태 및 특성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과 관련되는데 반해, 우울은 상태 분노, 분노 억제, 낮은 분노 통제와 관련이 높았다. 이는 이훈진(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귀인 및 추론 양식에서는, 편집증이 긍정 사건은 내부로, 부정 사건은 외부로 귀인하는 방어적 편향 및 행동의 적대성과 부정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추론하는 편향과 관련되는데 반해, 우울은 긍정 사건은 외부로 부정 사건은 내부로 귀인하는 편향 및 부정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추론하는 편향과 관련되었다.

귀인 및 추론양식과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의 관련성 면에서는, 상태분노와 긍정 사건에 대한 적대성 추론 및 부정 사건 발생 가능성 추정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특성 분노 수준은 부정 사건에 대한 적대성 추론 및 부정 사건 발생 가능성 추론과 상관이 있었다. 분노 억제와 표출은 대인관계 경험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물론 부정적 대인관계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추정하는 것과 관련되었고, 분노 통제 수준은 반대 결과를 나타냈다. 분노 통제가 감정적 요소를 통제하고 인지적 측면에서 분노를 통제하는 경향을 나

타내므로(장문선, 김영환, 1997; Chon et al., 1998), 이 결과는 분노 처리에서 감정적 요소의 개입을 조절하는 인지적 능력이 적대성 추론과 부정 사건 발생가능성 추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집단 비교 결과, 편집 집단은 비편집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수준이 높았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 행동을 적대적인 것으로 추론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 행동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높았다. 성 차 분석 결과 우울 수준 이외에는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종합하면, 이 결과는 편집증이 분노 억제와 관련된다는 전통적 가정(Cameron, 1963; Freud, 1915/1957)과 최근의 설명들(Dowson & Grand, 1995; Millon & Davis, 1996)을 지지하는 것이며, '편집증 과민성과 억제된 적대감' 가설(Millon & Davis, 199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귀인양식 결과는 전통적인 투사이론(Cameron, 1963; Freud, 1915)과 선행 연구들(이훈진, 원호택, 1998; Candido & Romney, 1990; Fear, Sharp, & Healy, 1996; Kaney & Bentrall, 1989, 1992; Kinderman, 1994; Kinderman

& Bentall, 199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적대성 및 사건발생 빈도 추정 결과는 적대성에 대한 추론이 내외 귀인과 별도로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편집증 및 우울과 관련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도에 대한 추론과 적대성에 대한 추론을 구분해야 한다는 Epps와 Kendall(1995)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우울의 경우 특성 분노보다는 상태 분노와 관련이 높았고,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노 통제에 어려움을 보였다. 편집증보다는 약하지만 분노 억제도 우울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Brody 등(1999) 및 이훈진(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역동적 가정(Abraham, 1911/1985; Freud, 1917)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편집증과 우울의 관련성 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결과는, 편집증과 우울이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부정적 대인관계 사건의 발생가능성 추정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분노 통제와 특성분노, 귀인 및 적대성 추론, 긍정사건 발생가능성 추정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임상 증상을 연구할 때 그 증상과 관련된 다른 증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훈진, 1997, 1999)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훈진(2001), Chadwick, Birchwood 및 Trower(1996), Chadwick과 Trower(1996)가 편집증을 자기개념 및 자존감, 우울 수준을 통해 하위유형으로 구분해 이해하고 서로 다른 치료적 접근을 시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분노 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귀인 및 추론양식이 편집증 및 우울과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편집증 및 우울의 이해와 구분, 치료적 방략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분노와 적대감이 편집증 및 우울의 핵심 증상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분노 유형과 분노표현양식, 귀인 및 추론 양식을 통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분노표현양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간의 관계, 편집 집단과 비편집 집단의 차이 및 성차를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로, 대

상 집단이 대학생 집단으로 제한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자 집단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 차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본 연구의 초점이 분노표현양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고, 우울을 제외하고는 성 차가 없었으며, 집단 비교에서도 집단 간에 성비 차가 없어 근본적인 문제는 없으나, 감정 경험과 표현에 성 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자체로도 유용한 임상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 차에 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편집 집단의 하위 유형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미 Chadwick 등(1996)이 그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훈진(2001)이 자기개념 수준을 기준으로 편집증 하위유형 탐색을 시도한 바 있다. 따라서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귀인 및 추론 양식에서 하위 유형간 차이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가족이나 사회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적인 대인관계 사건 경험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Harrow, Rattenbury 및 Stoll(1988)은 편집적 사고와 망상의 내용이 망상 시작 전에 가졌던 현실적 걱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으며, Butler와 Braff(1991)도 망상 내용이 환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Harper(1992)역시 피해망상 환자의 상당수는 실제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Berke, Pierides, Sabbadini 및 Schneider(1998)는 개인적 특성은 물론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한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편집증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시도하였다. 분노 역시 실제 경험과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정서라는 점에서 편집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요인과 개인의 체험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민선(1997). 유방압과 대응양식 및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미발표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호(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 모형을 통한 분석.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훈진(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훈진(1999).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15.
- 이훈진(2000).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27-438.
- 이훈진(2001). 자기개념 수준에 따른 편집증 하위유형의 탐색. *임상심리학회 2001학계 학술대회 논문집*, 148-152.
- 이훈진, 원호택(1995).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1998). 편집증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105-125.
- 장문선, 김영환(1997). 분노표현방식과 사회적 지지가 심장혈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197-207.
- Abraham, K. (1911/1985). Notes on the psycho-analytical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manic-depressive insanity and allied conditions. In J. C. Coyne (Ed.), *Essential papers on depress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rke, J. H., Pierides, S., Sabbadini, A., & Schneider, S. (Eds.) (1998). *Even paranoids have enemies: New perspectives on paranoia and persecution*. Routledge: London.
- Berkowitz, L. (1999). Anger. In T. Dalgleish and M. Power(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Brannon, L., & Feist, J. (1997). *Health psychology(3rd ed.)*.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Brody, C. L., Haaga, D. A., Kirk, L., & Solomon, A. (1999). Experiences of anger in people who have recovered from depression and never-depressed peopl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7(7), 400-405.
- Butler, R. W., & Braff, D. L. (1991). Delusions: A review and Integration. *Schizophrenia Bulletin*, 17, 633-647.
-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Boston: Mifflin Company.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 Chadwick, P. C., Birchwood, M.,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voices, and paranoia*.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Chadwick, P. C.,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punishment paranoia: A single case experi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351-356.
- Chon, K. K., Hahn, D. W., Chang, H. K., Kim, Y. J., & Oh, D. J. (1998). Mode of anger expression, standard of anger ex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patients with CHD and their spouse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3(1), 33-48.
- Chon, K. K., Hahn, D. W., & Lee, C. H. (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K):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3(1), 18-32.
- Dowson, J. H., & Grounds, A. T. (1995). *Personality disorders: Recognition and clinical manage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pps, J., & Kendall, P. C. (1995). Hostile attributional bias in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159-178.

- Everson, S. A., Goldberg, D. E., Kaplan, G. A., Julkunen, J., & Salonen, J. T. (1998). Anger expression and incident-hypertension. *Psychosomatic Medicine*, 60(6), 730-735.
- Fava, M. (1998). Depression with anger attack.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9(suppl. 18), 18-22.
- Fava, M., & Rosenbaum, J. F. (1999). Anger attacks in patients with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0(suppl. 15), 21-24.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Fenigstein, A. (1994). Paranoia. In V. S. Ramachan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ol. 3)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 Freud, S. (1915/1957). A case of paranoia running counter to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the disease.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917/1985). Mourning and melancholia. In J. C. Coyne (Ed.), *Essential papers on depress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Friedman, M., & Rosenman, R. H. (1974). *Type A behavior and your heart*. New York: Knopf.
- Harper, D. J. (1992). Defining delusion and the serving of professional interests: The case of 'paranoia'.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 357-369.
- Harrow, M., Rattenbury, F., & Stoll, F. (1988). Schizophrenic delusions: An analysis of their persistence of related premonitory ideas and three major dimensions. In T. F. Oltmanns & B. A. Maher (Eds.), *Delusional beliefs*(pp 167-183). New York: Wiley.
- Kaney, S., & Bentall, R. P. (1989). Persecutory delusions and attributional styl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2, 191-198.
- Kaney, S.,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serving bia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 773-780.
- Kennedy, H. G., Kemp, L. I., & Dyer, D. E. (1992). Fear and anger in Delusional(Paranoid) disorder: The association with violenc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0, 488-492.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7).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41-345.
- Kune, G. A., Kune, S., Watson, L. F., & Bahnson, C. B. (1991). Personality as a risk factor in large bowel cancer: Data from the Melbourne Colorectal Cancer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21(1), 29-41.
- Millon, T., & Davis, R. D.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and beyond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Okifuji, A., Turk, D. C., & Curran, S. L. (1999). Anger in chronic pain: Investigations of anger targets and intensit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7(1), 1-12.
- Sargent, C. A., Flora, S. R., & Williams, S. L. (1999). Vocal expression of anger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within dyadic interactions. *Psychological Reports*, 84, 809-816.
- Smith, T. W. (1994). Concepts and methods in the study of anger, hostility, and health. In A. W. Siegman & T. W. Smith (Eds.), *Anger, hostility, and the heart*. NJ: Erlbaum.
- Taylor, P. (1985). Motives for offending among violent and psychotic m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491-498.
- Wessely, S., Buchanan, A., Reed, A., Cutting, J., Garety, P., & Taylor, P. (1993). Acting on delusions. I: Prevalenc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3, 69-76.

원고접수일 : 2001. 7. 17.
수정원고접수일 : 2001. 7. 27.
게재결정일 : 2001. 8. 1.

The Mode of Anger Expression, and the Attributional and Reasoning Style in Paranoid Students

Hoon-Jin Lee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of paranoia and depression to the state-trait anger, the mode of anger expression, and the attributional and reasoning style. The Paranoia Scale, the Zung Depression Inventory,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the Attributional and Reasoning Styl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247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ate and trait anger, anger-in, and anger-ou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he ratings on hostility and frequency of the negative social events. The anger-control was negatively correlated. The paranoid tenden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state-trait anger, anger-in, anger-out, and defensive and hostile attributions. The depression scor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state anger, low anger-control, and self-accusing attribution. The paranoid group showed more state-trait anger, anger-in, anger-out, and rated positive events as more hostile, and rated negative social events as occurring more frequently in comparison to control group.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state-trait anger, mode of anger expression, attributional and reasoning style, paranoia depression